

## Fred Putnam 박사, 시편, 강의 3

© 프레드 푸트남(Fred Putna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관한 Dr. Fred Putnam의 세 번째 발표입니다. 퍼트넘 박사.

두 번째 강의에서는 크리스티나 로세티(Christina Rossetti)의 워터헤비(Water Heavy)의 짧은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또한 일반적인 시에 적용되는 또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패턴의 아이디어입니다. 패턴이란 사물이 반복되거나 특정 방식으로 결합되어 전체 효과가 개별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물이 무거움, 물이 짧음, 물이 약함, 물이 깊음, 질문의 패턴, 연속적인 질문은 우리가 각 줄에서 다음 줄에 대한 질문을 기대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작은 규모의 패턴과 매우 큰 규모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신이 더듬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부분을 보면, 즉 시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또 한 가지를 말하고, 한 가지를 말하고,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소요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글썄요, 그런 것들도 같은 뜻이죠, 그렇죠? 2절,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서서 서로 의논하니 세상의 왕들이요 관원들이로다 우리가 그들의 족쇄를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그 소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4절,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느니라. 5절, 그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음, 다섯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과 겁을 주는 것 사이에는 정확히 같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종종 두 번째 라인업이 엔티를 약간 높여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우리가 성경 시에서 시인이 무언가를 말하고 그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정확히 같은 방식은 아닌 것을 말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시에서 운율은 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기억하신다면, 소네트를 공부하셨을 때 운율 체계가 A, B, B, A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줄은 A이고 두 번째 줄은 B이며 다음과 같은 단어로 끝납니다. , B를 호출하고 A, B, B, A로 이동하면 해당 패턴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줄은 비슷하게 들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은 비슷하게 들리고,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등이 됩니다. 따라서 영시에서 운율은 종종 구성 방법입니다. 어떤 행이 함께 연결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시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히브리 시에서는 운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병렬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선이 그 앞의 선을 반영한다는 생각입니다. 또는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은 그 뒤에 오는 선을 반영하거나 예상합니다.

이게 뭔가요? 음, 이것은 매우 빠른 요약입니다. 한때 랍비들은 하나님은 결코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줄은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라인 사이에 가능한 한 많은 차이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민족과 민족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소란을 피우는 것과 허영심이나 공허한 것을 고안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17세기에 Luth 대주교는 일련의 강의를 했고 실제로는 다른 것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성경의 시가 선이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평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두 줄이고 때로는 세 줄이나 네 줄, 심지어 다섯 줄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드뭅니다.

보통은 2개, 때로는 3개입니다. 그리고 Luth는 선들 사이에 세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시편 1편의 예처럼 같은 말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아마도 시편에서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평행법일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대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류의 평행법은 대조인데, 거기서는 일종의 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는 것입니다. 혹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의 슬픔, 어머니의 슬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두 선은 서로 대조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대조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아들의 유형, 그리고 그의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사이에 있습니다. 잠언 10.1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평행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번역과 제가 학자들이 보는 일반적인 방식은 어딘가에 평행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길이가 다른 선일 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상당히 짧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꽤 짧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에서 잠언당 평균 단어 수는 7~9개 사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해야 할 일에 따라 13개에서 최대 28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속담 같은 소리를 믿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번역을 시작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늘어나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편을 읽으면 그 구절들을 다시 읽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읽게 할 것입니다.

6절에 이르면 6절은 앞의 다섯 절과 달리 실제로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각각 두 개의 평행선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3절에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우리에게서 벗어버리자.

4절과 5절도 같은 일을 합니다. 6절은 한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두 배입니다. 실제로는 앞에 나온 줄보다 두 배 이상 길죠. 모두 보통 세 단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네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는 독자에게 한 섹션의 끝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성경 시의 상당히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때로는 섹션이 끝났음을 알리는 줄이 한두 단어로 매우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의 줄보다 훨씬 깁니다. 가장 큰 질문, 또는 가장 큰 단서는 시인이 패턴을 설정한 다음 그 패턴을 깨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의 처음 다섯 절을 세 단어, 세 단어, 세 단어, 세 단어 등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곱 단어.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인지 뿐만 아니라, 그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가? 사실, 7절부터 시작하여 7절은 시편 2편의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편은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주님을 인용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7절부터 9절까지 논의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1절부터 3절까지 반역한 왕들을 소환합니다.

시편 기자는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서 시 자체 내에서 일종의 불연속성을 발견합니다. 영어에서는 빈 줄을 남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가 번역한 시편 2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3절, 6절, 9절 뒤에는 빈 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은 원본이 아닙니다. 편집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운율을 통해서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평행법, 유형, 행의 길이를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을 때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실제로는 시편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건 현학적이지 않나요? 왜 우리는 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걱정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목표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종의

일부는 시인의 생각을 시인이나 시인의 뒤를 따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잠시만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당신이 성경공부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주일학교에서 시편 113편을 가르칠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당신은 내 첫 번째 요점이 5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9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요점은 결론은 1절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글썄, 내 생각에 진짜 문제는 시인이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준 순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5, 4, 3, 2를 생각하지 않고 1부터 9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글썄, 구절 번호는 원본이 아니었지만 그는 쓰여진 순서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9절에 이를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든, 두 번째 요점이라고 생각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1절을 읽은 후 9절에 이르도록 순서대로 읽기를 원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본 후 8절까지입니다. 병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기에 두 줄이 있습니다. 이 두 줄은 어떤가요?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각 줄은 다음 줄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인이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각 선은 그 앞의 선을 반영하거나 대조하거나 그 선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3편 2절을 읽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와, 두 구절이 길군요.

사실, 그 내용은 매우 깁니다. 그것은 단일 문장입니다. 따라서 구절 내에는 평행이 없습니다. 대신에 두 구절 전체가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보면 2절 A행,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리로다, 3절 B행, 좋아요, 여기 아래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아, 그거 평행이군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시간과 공간, 동쪽에서 서쪽으로 두 개의 중간선, 두 개의 B와 세 개의 A를 보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단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매우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중간에 두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두는 것이 교차교차(chiasm) 또는 교차교차(chiasm)라고 불리는 매우 일반적인 성경적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하고 사물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면 그리스어로 x처럼 보이는 글자 카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교차교차(chiasm) 또는 교차교차(chiasm)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교차로 글을 썼는지 정말로 모릅니다. 기원전 10세기의 히브리 시에 관한 매뉴얼은 없는데, 제가 그걸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런 일을 아주 많이, 아주 많이 했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잠언에서 대조되는 대사가 있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어가 순서대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의 의미의 대조와 잘 어울립니다. 여기처럼 다른 경우에는 두 줄이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시인이 소네트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 그는 10음절 그룹으로 나누어진 140음절로 의사소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10번째 음절은 특정 운율 체계에 속하며 특정 운율을 따릅니다.

그 iambic처럼. 문제, 질문, 상황을 제시하는 8행과 그것을 해결하거나 설명하는 6행의 일정한 논리적 구조로 배열될 것입니다. 아니면 12줄, 다른 종류의 소네트, 문제를 제시하는 12줄과 그것을 요약하는 두 줄, 또는 셰익스피어에서 더 자주, 머리를 뒤집고 거꾸로 뒤집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했나요? 글썄, 그 사람 자신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CS Lewis는 한번 소네트를 썼는데 너무 어려워서 다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몇 가지를 더 썼지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왜 누군가가 '나는 줄이 거의 정확하고 길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교차점에서 시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맞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찬양, 시간, 공간, 찬양,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여 단어와 생각에 나타나는 패턴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누군가가 소네트를 쓰기로 결정하고 그 고문을 받겠습니까? 글썄, 그것의 일부는 그것이 인식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쓴 방식입니다.

평행법이 그들이 시를 쓰는 방식과 마찬가지로요. 그들은 희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희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네 번째 강의에서 함께 보게 될 것처럼 매우 세심하게 정리되고 구조화된 훌륭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편 114편을 보면 8절로 구성된 짧은 시편입니다. 모든 선은 앞의 선을 반영하며 매우 가까운 반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말을 더듬는 백성에게서 벗어나 애굽에서 야곱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바다는 보고 도망쳤다. 조던이 돌아섰다. 산들은 숫양처럼 뛰고, 작은 언덕들은 양처럼 뛰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번역하기가 좀 어렵네요. 너희가 도망하는 바다, 너희가 돌아서는 요단, 너희가 숫양처럼 뛰는 산, 어린양 같은 언덕이로다. 땅을 여호와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할지어다 그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부싯돌로 샘이 되게 하셨느니라

모든 줄은 그 앞의 줄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너무 자주 그 앞의 행을 반영하여 보통 또는 여러 번 두 번째 행에서 동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백성에게서 나왔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글쎄, 그건 꽤 흔한 일이야. 시인은 우리가 첫 번째 줄의 동사를 두 번째 줄에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매우 영리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의도한 동사를 두 번째 줄에 삽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 줄을 충분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의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후, 야곱의 집이 자정에 서둘러 달려갔던 것 같은 동사는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갔다고 하더군요.

혹은 유다가 그의 성소가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단지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영어 번역에서는 두 번째 줄에 동사를 넣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뭔가를 넣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기에 없다면 그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인이 두 번째 줄에 동사를 제공했을 때보다 실제로 두 줄을 더 밀접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 시편을 조금 더 살펴보면 3절과 4절이 5절과 6절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강이 물러가고 산들이 솟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 같이 뛰놀더라.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걸 보세요. 3a로 돌아가세요. 5b는 3b와 결합되고, 6a 및 6b는 4a 및 4b와 결합됩니다.

그리고 사실, 4b와 6b는 히브리어에서는 동일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양들과 같은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가 진술이고 두 번째가 질문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글썄, 병렬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매번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두 줄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Loth의 용어, Lowth 주교 또는 Lowth 대주교의 용어를 생각해내더라도 그 용어는 실제로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때로는 그 용어가 방해가 되어 사람들이 선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온갖 종류의 용어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의 병렬 구조와 평행성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에 관한 전체 책, 큰 책이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실제 문제는 시인이 글을 썼을 때 실제로 두 개의 별도 문장을 쓰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가 a, b 또는 c와 같거나 새로운 것과 같이 어떻게든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단일 명령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나 세 번째 구절이 있다면 읽지 않고 첫 번째 줄을 읽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의 분리된 진술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줄을 고려하지 않고 두 번째 줄을 읽는 것도 불법입니다.

구절은 의도되었거나 평행한 것입니다. 평행선이 구절 구분을 넘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절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의 경계,

절의 경계는 성경 본문, 원문보다 훨씬 늦습니다. 평행선이 함께, 모두 함께 진술을 만들고, 주장을 하고, 질문을 하고, 기도를 드리며, 그 밖의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에 무엇을 추가합니까? 아니면 첫 번째 줄은 무엇이며, 첫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연속해서 읽으면 그것이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렇죠? 한 번에 한 단어씩. 그래서 우리는 한 줄에서 다음 줄로 읽었습니다. 저는 이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음 줄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거의 그 위에 세워진 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해하려면 기초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면 비유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시편 114편 1절에서 애굽이 말을 더듬는 백성, 외국어 또는 낯선 언어를 말하는 백성과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나일강 땅에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은, 바로의 땅, 요셉이 두 번째로 통치했던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첫 번째 줄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용어와 평행을 이루기 위해 특정 용어나 아이디어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왜 첫 번째 줄에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이스라엘이 방언이 낯선 백성, 곧 야곱의 집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말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나요? 아, 아시다시피, 그것은 시에서 저자의 선택에 관한 전체 질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소네트를 쓴다면 142음절을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다른 단어를 찾으셔야 합니다. 운율 체계에 맞춰야 합니다. 당신은 이 단어를 좋아하지만 운율이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가서 하나 더 사오세요. 당신은 특정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려면 해당 의사소통 방법의 규칙,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시에서 일반적인 관례는 선이 평행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모든 라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번역이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이유는 번역이 실제로 페이지 전체에 걸쳐 전체 텍스트 줄을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이것에 대한 이유를 확신하지 못하고 동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중 일부는 2단 성경으로의 전환으로, 긴 줄을 갖는 것이 더 어려워지거나 긴 줄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성경 시가 평행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학계의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없더라도 두 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끊을 장소를 선택하고, 동사 뒤에서 그것을 끊고, 목적어를 두 번째 줄이나 그와 비슷한 곳에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보았던 시편 2편으로 돌아가면, 시편 2편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떠들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1절, 매우 평행한, 백성들과 나라들, 소동하며 헛된 일을 도모하는 것.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의논하느니라.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여, 서서 함께 의논하십시오. 그것은 모두 꽤 평행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실제로 이 특별한 번역에는 2절에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야훼와 그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효과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문장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단지 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2절의 두 번째 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번역을 보면, 어쨌든 이 줄이 처음 두 줄에 추가되는 세 번째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글쎄, 그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동사의 간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세 단어로 구성된 세 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은 7개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3단어, 3~4단어로 된 6줄이 더 있고, 그 다음에는 6절, 7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절 이후에는 구조가 약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질 것입니다. 구조에 틈이 있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임의적인가? 아니, 보세요, 그게 위험해요. 그가 시적인 이유나 시적인 효과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건 정말 경찰이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임의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사물을 해석할 수 있고 꽤 정교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아마도 이것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략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Molly Peacock의 책에서 가져온 매우 간단한 인용문입니다. 그녀는 “내가 이걸 지어낸 건가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일 수 있을까? 글썄요, 인용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의미가 소리와 이미지, 의미와 기능, 줄의 길이와 구조의 상호작용인 이 줄에 담겨 있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인이 일할 때 그것은 실제로 우뇌이고 그것이 하려는 일의 좌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시인이 완전히 인지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시너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시의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의 의미를 이루는 본질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것이 소리가 나고 대부분의 번역이 2절 다음이 아닌 3절 뒤에 중단점을 넣을지라도 시편 2편에서는 그것이 있어야 할 곳인 것처럼 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르면, 어떻게든 2절 이후에 휴식 시간이 와야 합니다.

3절이 시작됩니다. 글썄요, 4절을 깨뜨리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읽으면 4절은 분명히 주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반면, 3절은 여전히 의논하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등등.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1절, 2절, 3절은 내용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은 1절과 2절의 구조로 인해 1절과 2절과 분리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시편 2편 1절과 2절에서 정말 멋진 히브리어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 네 줄에는 4개의 동사가 있는데, 즉 1절과 2절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히브리어로 완료형이라고 부르자. 다음 동사는 불완전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네 번째 동사는 완료형이에요. 보시 다시피, 우리는 다시 ABBA 패턴, 즉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차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시인은 자신이 그러한 동사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방식으로 배열을 배치한 걸까요? 사실, 히브리어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번역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절을 작성하고 각 줄의 주어를 A, 동사 B, 술어 또는 목적어 C라고 부르면 문장의 순서가 실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절은 모두 교차교차이고 2절은 모두 교차교차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의 네 동사는 서로 다른 교차를 만들어서 두 개의 교차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3절, 4절, 5절은 다른 종류의 평행법으로 진행합니다. 동사, 즉 주어-동사 목적어를 사용하면 ABC, ABC, ABC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일 뿐입니다. 또 똑같아.

더 이상 교차가 없습니다. 사고? 아니 아니. 시인은 자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시를 읽는 것의 일부이며, 와, 정말 멋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시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런 다음 시작하고 우리는 왜 그것이 멋진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어딘가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더라도 프로세스의 일부는 이것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반복을 더 보여 드리고 조금 더 큰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13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매년 유월절에 낭송되는 노래인 이집트 할렐이라고 불리는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시편 그룹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의 공통점은 야훼를 줄여서 표현한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이나 끝이나 둘 다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113편은 시작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할렐루야), 끝맺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할렐루야). 그것은 평행하지 않습니다. 내 말은, 평행하기 때문에 병렬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자, 그런 일이 시편의 시작 부분이나 시편의 끝 부분에 일어날 때, 시인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걸까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이 끝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인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하다.

처음으로, 또는 시편 113편을 읽을 때, 우리가 온갖 종류의 신학적인 짐을 갖고 오지는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덟 살 때 아버지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예. 그러므로 시편의 끝 부분에 이르러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읽을 때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더라도 반복이고, 단어도, 단어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진술의 의미와 기능은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는 소환장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상기시키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9절까지에서 그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선하신지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행, 즉 반복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기능, 동일한 어휘 의미, 동일한 사전적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동일한 목적을 갖지는 않습니다. 시편 10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의 시작 부분에서 시편을 말하는 것, 그런 식으로 시편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끝에서 다시 말하는 것, 즉 22절 뒤에 또는 21절 뒤에 22절에서 시편을 다시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선한 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지, 왜 그 사람을 축복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찬양의 노래의 또 다른 특징, 즉 예배와 찬양의 시편을 지적합니다. 즉, 성경인 시편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가 누구인지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종종 우리의 사리사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창조, 창조의 작품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실제로 구원이나 구출을 위한 사역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 예배에서 듣는 세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의 창조를 유지하시는 섭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양의 구원 사역을 찬양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시가 아니라 성경의 시에 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어떤 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강요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 두 줄이 함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자가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줄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 두 줄을 합쳐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언의 절반을 읽는 것처럼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식으로 한 줄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잠언의 전부는 아닙니다. 말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슬픔이다. 아, 보세요, 그 경우의 대비는 그들이 단지 혼자 서 있을 때보다 각각의 의미를 더 높은 프로필로 던집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행동뿐만 아니라 두 가지 행동 모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에서도 우리가 읽는 내용들이 서로 평행하게 결합되어 우리에게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개별적으로 취한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구조를 볼 때 시편 전체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개요를 잡으면 시편 3편부터 시작하여 꽤 빨리 시편에 대한 상당히 표준적인 개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의 약 3분의 1은 실제로 시편 13편과 비슷합니다.

시편 13편의 대략적인 개요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 세 구절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 의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하리이까? 내 원수가 나보다 언제까지 우월하겠느냐?  
번역할 때 대개 O, Lord, O, God, O, my God로 시작하는 다른 많은 시편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관심을  
달라는 간청인 것 같습니다. 내 말은, 나를 영원히 잊을 건가요? 내 생각엔 당신이  
나를 영원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움 요청이 이어집니다. 시편  
3편에는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하사 내게  
응답하소서 내 눈에 빛을 주소서 혹시 내 눈을 빛나게 하소서 그와 같은  
것으로소이다

그게 그의 요청이에요. 그런 다음 그는 왜 그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주님께 설명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죽어 잠들지 않도록, 내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하거나 내가 흔들리는 것을 내 원수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4절에서 평행법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대적들이여  
내가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내가 흔들리는 것을 저희가 기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확한 평행성은 아니지만 매우 가깝고 동의어입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 이것이 좋은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사랑의 친절을 믿었고, 제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거나 곧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나 확신 또는 일종의 희망의 표현입니다.,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와 선대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시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한 문장이고 정말 긴 문장입니다. 긴 줄의 기능 중 하나는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는 약속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는 언제까지 나를 잊을 건가요? 즉,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리고 여섯 구절의 공간에서 연설이나 기도의 개요를 통해 기도는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부르며, 그들을 초대하고, 도움을 청하고, 간청하는 이유,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의 자신감 표현, 그리고 그의 약속.

가끔은 노래하자는 약속도 있어요. 때로는 희생을 바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내 형제들과 함께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리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약속들, 온갖 종류의... 자, 시편의 3분의 1은 이렇게 보입니다. 시편의 3분의 1, 52편이나 53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죠.

단,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편 88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88편은 어떤 격려나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편 88편은 당신이 연인과 친구를 나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말로 매우 생생하게 끝납니다.

내 지인들은 어둠입니다. 일종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시인들이 따르는 경향이 있는 패턴이 있다면 왜 시편 88편은 그 패턴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이 시인은 정말, 정말, 정말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나요? 아마도.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빛의 존재는 우리가 터널 끝에서 항상 빛을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까요? 내 말은, 적어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는 그에게 불평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런 윤곽을 알아차리는 것도 가치 중 하나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두세 편의 시편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시편에서 그 이유와 동기가 5절 내지 10절로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그 불평이 10절 길이의 부분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마지막 약속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구원받은 후에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좋아요, 그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서, 이 시에서, 이 애도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정말로 이 생각, 이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리고 이것은 같은 유형의 다른 시들과 어떻게 비교되고 대조되는가? 그래서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운동입니다.

소네트는 수백 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옥스포드는 The Book of Sonnets라는 멋진 작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고 그것을 읽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소네트가 특정한 종류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소네트가 그것에 어떻게 들어맞나요? 그리고 왜 그는 똑같은 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패턴이 조금 다르게 보일까요? 그는 왜 일을 재정렬합니까? 왜?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다소 표준화된 것을 취하고 그것을 약간 수정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비틀기는 시의 의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단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식이 콘텐츠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형식, 모양이 실제로 콘텐츠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감사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멋진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길 바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아, 그 작품들 좀 보세요. 그는 이것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종합할 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시편 2편의 시작 부분에 있는 대사들을 한데 모아 놓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음, 그것이 바로 시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은 몇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시편의 또 다른 주요 유형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113편과 같은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그들은 찬양하라는 부르심, 명령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그다음에는 찬양하라는 부르심으로 끝납니다.

때로는 그 중 하나가 더 길거나 짧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서 찬양해야 할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 줄의 절반인 3절이고, 마지막 다섯 줄은 모두가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글썬요, 다섯 구절을 의미합니다.

글썬요, 시편 150편은 시편 148편과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의 강조점은 누가 찬양하는지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서는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유형의 시편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게 될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패턴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단지 150편의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서로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에 속하는 150편의 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형 내에서 서로를 조명하고 각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각각이 해당 패턴으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인의 생각을 따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읽고, 시인이 어떻게 썼는지 알아보세요.

이것은 Fred Putnam 박사가 시편에 관해 네 번 발표한 것 중 세 번째였습니다.